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

정희원(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장) · 위진(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 머리말

세계화의 물결이 지구촌의 구석구석을 휩쓸면서, 국제어로 인정받고 있는 몇몇 언어를 제외한 전 세계의 언어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어도 예외는 아니다.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은 2011년 1월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구상의 6,700여 개 언어 중에 21세기 안에 대다수가 소멸하고,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정도만 살아남고, 경제 대국인 일본어와 독일어 정도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미래 학자들의 예상을 인용하면서, “한국어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더라도 집에서만 쓰는 비공식 언어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한국어의 위기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언어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 및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은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홍보 및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자국어 사용을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언어 다양성을 기반으로 자국의 언어를 보존·보급하는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는 프랑스를 주목할 만하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을 방문하여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파악하고, 국립국어원과의 교류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의 정희원 팀장과 위진 학예연구사가 201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문화소통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의 소속 기관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외무부(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의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Diversité linguistique et du français, responsable de la coopération éducative), 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의 ‘문해 교육부’(Education nationale dans le groupe des Lettres),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 ‘국가 비문해 퇴치원’(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등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어 정책인 ‘프랑스어 사용법’(1995. 3. 5. 공포, 일명 투봉법)에 관한 내용은 국내에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지만,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국어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을 기관별로 살핀 이 글이 우리나라 언어 상황에 시사하는 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

프랑스는 언어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따로 없고, 문화소통부, 교육부, 외무부에서 업무 내용에 따라 나누어 담당한다. 문화소통부는 소속 기관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의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 프랑스어를 보급하고, 프랑스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공·사 기관의 활동을 촉진하고, 프랑스어 사용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등의 언어 정책을 펼친다. 교육부는 문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프랑스어 교육 정책을 담당하며, 특히 프랑스 내의 외국인 청소년을 위해 프랑스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이민 가정 출신 청소년의 프랑스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외무부는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를 중심으로 외국에서의 프랑스어 보급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어와 관련한 언어 기관으로는 학술 연구 기관인 프랑스 학술원, 국내외 프랑스어 사용자의 비문해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가 비문해 퇴치원, 프랑스어를 국제어로 활성화시키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족된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등이 있다.

2.1.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élégation générale à la langue française et aux langues de France)

2.1.1.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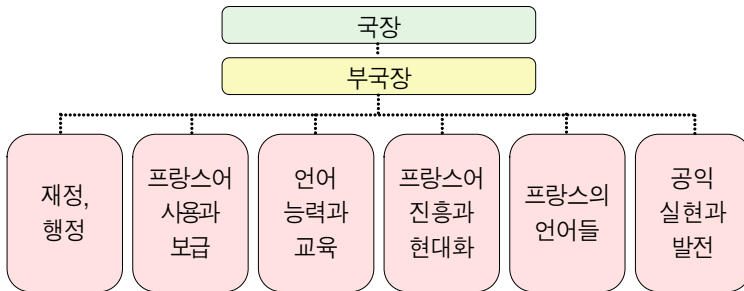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1966년 고위위원회(Haut Comité)의 발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위위원회는 프랑스어 수호와 보급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발족되었다가 1984년에 폐지되고, 그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프랑스어 자문위(Comité consultatif)와 프랑스어 사무국(Commissariat général)이 설립된다. 프랑스어 자문위는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급, 프랑스어권(Francophonie), 프랑스의 언어들, 프랑스의 외국어 정책에 관련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프랑스어 사무소는 프랑스어 보급과 수호에 협력하는 행정부, 공·사설 기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9년에는 다시 프랑스어 고등 평의회(Conseil supérieur)와 프랑스어 총괄국(Délégation générale)으로 개편된다. 그리고 1996년에는 프랑스어 고등평

의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두고, 프랑스어 총괄국만 문화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프랑스어의 사용과 어휘 다양화’에 관한 권한은 국무총리가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프랑스어 총괄국을 관장하는 문화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한다.(송기형 1998: 94~103) 프랑스어 총괄국은 2001년에 다시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현재 문화소통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문화소통부 장관의 권한이 국무총리의 위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매년 9월에 ‘프랑스어 이용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2.1.2. 조직과 업무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다음과 같은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¹⁾



‘프랑스어 사용과 보급부(Mission emploi et diffusion de la langue française)’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어 사용과 보급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들은 ‘프랑스어 사용법’²⁾을 근거로 학술 대회 등의

1) 재정·행정 부서의 업무는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2) ‘프랑스어 사용법’은 소비, 직업, 교육, 학문, 방송 매체, 행정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여서 프랑스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공공장소, 상품 사용 설명서 등의 생활 정보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감시한다. 또한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프랑스어 사용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을 한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가장 큰 언어적 쟁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어 사용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영어 강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어의 위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간명하다. 영어화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문화 접촉의 기회를 줄이고, 사회 전체의 쇠락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어 교육만을 고집하지 않고, 유네스코의 언어 다양성 사업을 지지한다. 모든 어린이들에게 프랑스어를 제외한 2개 언어를 교육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³⁾

'언어 능력과 교육부(Mission maîtrise de la langue et action territoriale)'는 프랑스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법무부·청소년부 등의 행정부 및 공·시설 기관에서의 프랑스어 교육 활동을 독려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어 교육의 초점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해 교육에 있다. 프랑스어 구사 능력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주요 필수 능력으로 작용하므로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모어 사용 능력 증진을 언어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교육도 이전에는 지식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 프랑수아 발디(2012: 187~189), 송기형·장천현(1999)을 참고하기 바란다.

3) 이는 영어가 지나치게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언어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유럽 연합(EU)에서 각 회원국에 권장하는 방침이다. 프랑스는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면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이 모어 외에 제1 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더라도 제2 외국어로는 프랑스어를 많이 선택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언어 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들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 중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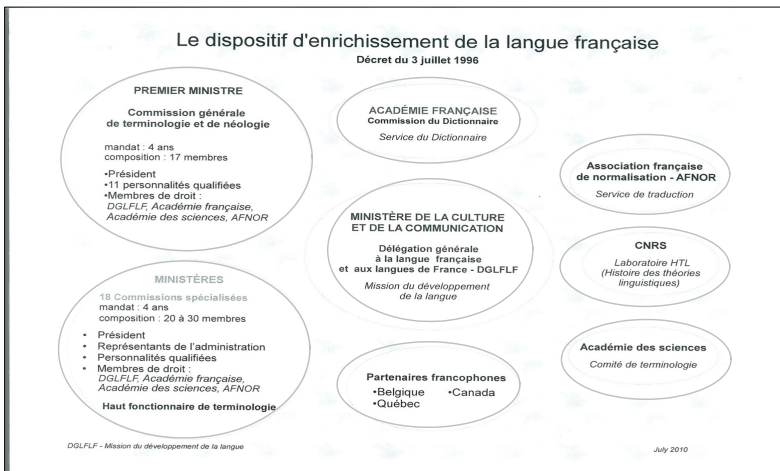
습득이 주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지식 습득을 위한 언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16세까지 청소년이 배워야 하는 ‘프랑스어 습득에 관한 교육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청소년 교육 과정 내용을 재정의하면서 교육 방향을 지식 습득에서 언어 능력 향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담당하는 부서를 달리한다. 청소년의 문해 교육은 주로 교육부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매년 ‘군인 예비 선발일’에 17세 모든 청소년 남녀를 대상으로 문해력 조사를 실시하여 프랑스 내의 문식성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의 독서 지원과 같은 청소년의 프랑스어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수감된 청소년에 대한 프랑스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문식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이 그만큼 프랑스 전체의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교육은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성인의 문해 교육은 산업부와 경제부에서 담당한다. 비전문직종 취업자의 문제점이 프랑스어 구사 능력이 뒤떨어지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법무부는 교도소 수감자의 절반이 무학자임을 고려하여, 쓰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문해 교육 기관으로는 국가 비문해 퇴치원(ANLCI) 등이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언어 능력과 교육부’는 위에서 언급한 행정부 및 여러 기관과 업무 협정을 맺어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비문해자가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다시 글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부(Mission développement et modernisation de la langue française)’는 전문 분야의 신어를 수집하여 순화하는 일을 한다.

주로 영어로부터 들어온 단어를 적당한 프랑스어로 대체하는 일이다. 신어의 순화에는 정부의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행정부 18개 부처에 '전문 용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순화해야 할 전문 분야의 신어를 조사하고 그에 대응하는 순화어를 모색한다. 그리고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부'에서는 각 부처의 '전문 용어 위원회'에서 작성한 목록을 토대로 신어를 순화한다. 이 과정에서 어원, 조어법 등 언어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문 분야의 개념을 정확히 지시하면서도 프랑스어의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프랑스 학술원에서는 순화된 신어를 최종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는 프랑스 정부의 관보(Journal Officiel)에 결정된 용어를 게재한다. 이 외에도 신어 순화에는 프랑스어 표준화 협회, 과학 학술원, 국립 과학 연구 센터(CNRS), 프랑스 어원 국가들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신어 순화에 참여하는 기관〉

프랑스어의 신어 순화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명목상이지만 국무총리가 순화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발표한다. 이처럼 국무총리가 전문

용어 순화를 감독하는 까닭은 전문 분야의 신어가 프랑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순화의 결과를 프랑스 정부의 관보에 게재한다.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행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용어를 쓰도록 제안·권고한다. 셋째, 순화의 결과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순화어가 정착한 예로는 ‘이메일(email)→쿠리엘(courriel)’, ‘네트(net)→필레(filet)’ 등이 있다. 이처럼 순화어가 정착하는 데에 성공한 까닭은 언어적 원인이 아닌, 친밀감을 유도하는 등의 심리적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순화 실무자는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언어들부(Mission langues de France)’는 프랑스의 언어들⁴⁾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결과를 취합하여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며, 기관지 《언어와 도시(Langue et Cité)》(1년 3회) 및 부정기적 간행물을 통해 국민에게 전파한다.

그리고 1961년 이후에 수집된 구술 자료를 취합·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인터넷 사이트(www.corpusdelap parole.fr)를 통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일도 한다. 그들은 교육부, 법무부와 연계하여 구술 자료 조사·정리 지침서인 《구술 자료집(CORPUS ORAUX)》을 발간하여, 구어 자료 채취 방법 및 제보자 신상 자료 취급 방법 등에 대한 구술 자료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 실현과 발전부(Mission sensibilisation et développement des publics)’는 2011년 3월에 신설된 부서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언어 정책 및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사업을 홍보하는 일을 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프랑스어 사용 실태를 관찰하여, 행정부 부처 18개의 전문 용어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전달하고(2011년 9월 중순에 시작), 인터넷의 언어 양태를 연구한다.

4)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의 언어들이란 프랑스 내의 75개 지방 방언(브르타뉴어, 알자스어, 바스크어 등)은 물론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포함된다.

2.2. 교육부의 문해 교육부

교육부는 프랑스 청소년의 교육을 전담한다. 부속 부서인 문해 교육부에서는 교육 기관을 평가하고, 프랑스 문학과 어학 관련 문교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청소년의 입국이 꾸준히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매년 프랑스 학교에는 4만 명 정도의 외국 학생이 입학한다. 전체 학생의 3%(초등학생의 2.9%, 중·고등학교 3%)에 해당하며, 이들은 주로 북아프리카, 동유럽, 중국 출신의 이민 가정 자녀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1965년부터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하였다.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된 특수 학급을 설치하여, 교사가 프랑스어를 지도하였다. 그러나 ‘특수 학급’ 내에서의 고립된 활동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2005년에 ‘학생별 특성화 교육’으로 전환된다. ‘학생별 특성화 교육’은 외국인 학생을 일반 교실에 두고, 특별 관리 교사와 튜터(tutor)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튜터는 프랑스인의 우수한 선배로 선정하는데, 특별 관리 교사와 함께 외국인 학생이 일반 학급 내에서 급우들과 관계를 맺고, 프랑스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곧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어, 졸업 후 사회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한 교원 양성 과정별로 교육 내용을 FLE(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FLSco(Français langue de scolarisation), CASNAV(Centre acadé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oyage)로 구성하여 교육한다.

FLE는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 양성 과정이다. 프랑스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과정인 FLS(Français langue seconde)와 구분되며, 이 과정에서는 프랑스 문화와 시민 의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한 프랑스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한다.

FLSco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습 프랑스어를 교육하기 위한 교사 양성 과정이다. 같은 단어라도 과목에 따라 용법과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역사와 생물 시간에 사용되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역사에서는 ‘증언’을, 생물에서는 ‘보고’를 의미하는데,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 내용이나 교사의 지시 사항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FLSco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프랑스어를 교육한다. 그리고 교사가 과제를 제시할 때에 사용하는 프랑스어나 시험의 점수나 학교의 규칙 등을 알려 주는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프랑스어를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치는 방법을 배운다.

CASNAV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 센터로, 이민 가정을 위한 교육 과정을 안내한다. 이민 가정은 프랑스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과는 다른 교육 과정을 적용한다. CASNAV의 행정 직원은 이민 가정 자녀를 환영하고,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는 이민 가정 출신의 자녀에게 제2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교육하는데, 프랑스어의 빠른 습득을 위해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고 있다. 현재 유아 교육을 위한 특별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어 정책을 수립 중이다.

2.3. 외무부의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

외무부의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는 외국에서의 프랑스어 보급 정책을 담당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은 19세기 식민지에 프랑스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시작된다. 1909년 사무국을 발족하고, 대외 프랑스 문화 정책을 관장한다. 그리고 1981년 외무부에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가 설치되면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으로는 국내의 본부와 국외의 외부 기관이 있다. 국내의 본부는 ‘언어 다양성과 프랑스어 교육 협력부’이며, 문화·교육 분야에서의 프랑스어 홍보 방안을 기획하고, 외부 기관을 관리한다. 국외의 외부 기관으로는 프랑스 학교(2011년 현재 485개)와 프랑스 문화원(Institut français) 등이 있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은 주로 외국의 프랑스어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프랑스어를 홍보하고, 전파한다. 외국 기관과 협력하여 프랑스어 과목을 강의하거나, 프랑스어가 아닌 과목을 프랑스어로 교육하기도 한다. 특히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

프랑스어 홍보는 다양한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프랑스어가 배우기 어렵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며, 《프랑스어를 쉽게 배우자》(2012년 발간 예정) 등의 책을 편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의 국가와 공동으로 인정함으로써 제2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사용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가 문학적, 낭만적 언어가 아닌 과학적, 현대적 언어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가 실시하는 프랑스어 능력 시험의 자격 취득자에게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2.4. 그 외의 프랑스 언어 기관

2.4.1.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

프랑스 학술원은 이탈리아 학술원을 모델로 삼아 1635년 리슐리외 추기경에 의해 설립되었다.⁵⁾ 프랑스 학술원은 프랑스어에 필요한 규칙을 제공

5) 프랑스 학술원과 이탈리아 학술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여 프랑스어를 순화하고, 프랑스어로 예술과 과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목적 이면에는 프랑스어로 국가를 통합하여 왕정을 통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학술원은 프랑스 왕정의 전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치러지는 의례 및 특별 회의에서는 회원들이 왕정의 기사 복장을 하고, 왕정의 의례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

현재 정회원은 36명(정원 40명)이며, 회원은 종신제이다. 국적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프랑스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 자격을 갖는다. 프랑스 학술원의 최초 여성 회원인 유르스나르(Marguerite Yourcenar)는 벨기에 태생의 소설가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학술원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랑스 학술원 사전(Dictionnaire de L'Académie française)》을 발간하고, 사전 발간의 기초 단계로 전문 분야 신어의 순화어를 심의한다.

《프랑스 학술원 사전》은 대다수의 프랑스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어를 등재 기준으로 삼아, 방언이나 예술·과학 등의 전문어, 직업어 등은 등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전에 등재되는 모든 표제어는 프랑스 정부의 관보(Journal Officiel)에 발표한다. 설립된 지 60년 만인 1694년에 초판이 발간되었으며, 1935년에는 출판 300주년을 기념한 8판이 발간되었다. 현재

	이탈리아 학술원 (Accademie della Crusca)	프랑스 학술원 (Académie française)
설립 연도	1530년경	1635년
설립자	피렌체의 인문학자들 ※ 플라톤의 '지식의 성전(idea 학당)'을 모델로 시작	리슐리의 추기경
설립 목적	당시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사용된 200여 개의 방언을 사전으로 편찬하기 위해서	프랑스어의 순화와 프랑스어의 진흥을 위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기관 형식	민간 기관	국가 기관

는 9판이 발간 중인데, 2권까지는 출판이 완료되었으며, 3권은 2012년에, 최종권인 4권은 2016년에 출판될 예정이다.



〈프랑스 학술원 사전 8판〉

특히 9판은 8판에 비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특징을 지닌다. 근본적인 변화는 사전 편찬의 관점 변화이다. 과거에는 프랑스어의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신어에 관심을 가져 전문 분야의 신어를

제공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등재 어휘 수가 32,000단어에서 57,000단어로 증가하여 권수가 2권에서 4권으로 늘어났다. 둘째, 3,000권의 책뿐만 아니라 인터넷판으로도 배포할 계획이다.⁶⁾ 셋째, 2011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 문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 세계 프랑스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4.2. 국가 비문해 퇴치원(Agence nationale de lutte contre l'illettrisme, ANLCI)

국가 비문해 퇴치원은 프랑스 내에 비문해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비문해 퇴치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되었다. 1970년대 이전의 프랑스 정부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까닭에 국내에 비문해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외국인 3~4%만을 비문해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민간단체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비문해자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1984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대학 연구소에 프랑스 내 비문해자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여 비문해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노동부 산하에 비문해 퇴치를 위한 기관이 발족되었다. 그 후 1998년

6) 프랑스 학술원에서는 《프랑스 학술원 사전》을 3,000부만 발간하지만, 일반 출판사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고판으로 제작하여 별도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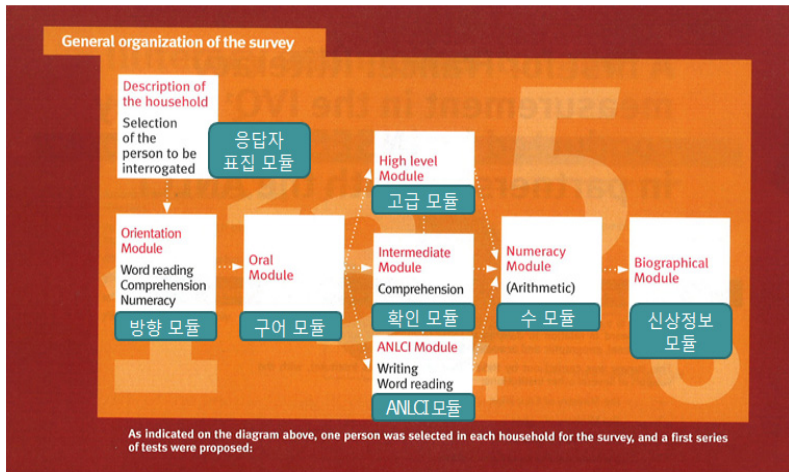
에는 리옹 지역의 시의원이 비문해 퇴치를 위한 전문 기구 창설을 주장하면서, 국가 비문해 퇴치원 설립의 발판이 되었다.

국가 비문해 퇴치원은 주로 프랑스 국민의 문해력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실제로 조사하여 통계 결과를 평가한다. 또한 비문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도구를 개발한다.

사실 프랑스의 문해력 조사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1980년에는 이전 통계 조사 내용 중 문해력과 관련한 문항의 결과를 이용하여 문해율을 간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1994년에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적 성인 비문해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중간 조사 결과 비문해율이 42%로 집계되고,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어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4년 뒤인 1998년 재조사에는 불참을 선언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2000년 발족된 국가 비문해 퇴치원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문해력 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다. 2002년에는 프랑스 10개 지역의 2,10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 중 880명을 선택하여 1994년 OECD 조사 내용과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을 포함한 비문해율은 15%로 집계되었다. 2005년에는 해외 지역의 문해력을 조사하였으며, 2011년에는 프랑스 내 문해력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 원에서 실시하는 문해력 조사는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적 성인 비문해도 조사 방법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OECD의 조사는 국가별 비문해율을 횡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통계 조사인 반면 국가 비문해 퇴치원의 조사는 프랑스 국내의 조사로 국한된다. 그들은 언어권마다 각자의 문화가 있고 사고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국제적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둘째, OECD의 조사는 문해력을 평가하여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절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국가 비문해 퇴치원의 조사는 비문해의 기준을 정하고 도달과 미달로 평가한다. 그들은 비문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국민을 대상으로 비문해 퇴치 활동을 펼친다.

또한 문해력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모듈의 기능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허준 외 2010: 83~84)

모듈명	기능	모듈 구성
방향 모듈	- 이 모듈에서 얻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모듈로 안내하는 역할 - 이 모듈의 결과에 따라 - 문제없는 부류(대상자의 80%) ⇨ 고급 모듈 안내 -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부류(대상자의 20%) ⇨ ANLCI 모듈 안내 - 두 부류 사이에 있는 부류 ⇨ 확인 모듈로 안내. 검사 계속	- 단어 읽기 - 간단한 텍스트(TV 프로그램)의 이해를 묻는 질문 - 간단한 계산 문제
구어 모듈	구어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 측정	도로 안전, 일기 예보를 녹음한 메시지를 듣고 이해 능력 측정
고급 수준 모듈	고급 수준 조사 대상자의 문해력 측정	텍스트 이해 수준 측정

확인 모듈	- 텍스트 이해 능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급 모듈과 ANLCI 모듈로 안내	- 텍스트 이해 수준 측정
ANLCI 모듈	- 낮은 수준의 조사 대상자의 문해력 측정	- 단어 받아쓰기 (시장 보기 목록) - 단어 읽기(CD 커버와 곡명)
수 모듈	- 산술 능력 측정	-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술 문제 예) 역에서 X명의 사람이 타고, Y 명의 사람이 내렸다. 여행자의 증감은?
신상 정보 모듈	- 응답자의 신상 정보 파악을 위한 모듈	

국가 비문해 퇴치원은 이처럼 비문해 퇴치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문해 퇴치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시·조정하는 일도 한다. 프랑스 국내와 해외 영토를 2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비문해 퇴치 단체의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활동 결과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기도 한다.

2.4.3.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프랑스어권 국제기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70개 회원국과 프랑스 정부 사이의 적극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1970년에 설립되었다. 이들은 프랑스어권 대학생 기구(Agency University Francophonie)나 프랑스어 사용 국가의 단체와 협력하여 프랑스어를 국제어로 활성화시키고, 전 세계적인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 민주화 절차를 도입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 국제기구는 프랑스어를 제1 언어나 제2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프랑스어로 교육을 실시하여 프랑스어를 진흥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매년 프랑스어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여러

방식을 적용한다. 인구 조사 질문지에 설문 내용을 삽입하기도 하고(캐나다 퀘벡 등을 포함한 20개 국가에서 시행), 교육 과정을 프랑스로 구성된 국가의 취학을 통계를 인용하기도 하며(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실태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년 세계의 프랑스어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 작성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10월에 《La langue française dans le monde 2010》가 발간되었다.

또한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과 함께 ‘프랑스어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프랑스어 주간’ 행사는 1988년 3월 20일에 지정된 ‘세계 프랑스어권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6년부터 매년 3월 20일 즈음에 세계 각국에서 개최된다. 주로 프랑스어와 관련한 기념행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10개 단어로 말해요’이다. 매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5개국 위원회에서 10개 단어⁷⁾를 선정하고, 단어마다 시인, 작가 등의 멘토를 지정한다. 멘토들은 10일 동안 자신의 단어에 대해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이 외에도 이 10개의 단어를 주제로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이 실시된다.



〈10개의 단어로 말해요〉

7) 2010년에는 ‘영혼, 다르다, 성격, 집, 부탁해요, 역사, 자연, 경향, 꿈, 교통’을 선정하였다.

3. 맺음말

지금까지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과 언어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언어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의 소속 및 업무가 우리나라와 유사함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 기관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과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은 문화부(문화소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으로 문화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부서의 구성 및 업무 또한 유사하여 대칭을 이룰 정도이다. ‘프랑스어 사용과 보급부·프랑스의 언어들부 대 어문연구팀’, ‘언어 능력과 교육부 대 국어 능력 발전과’,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부 대 공공언어지원단’, ‘공익 실현과 발전부 대 언어정보팀’. 다만 프랑스에서는 문해 교육과 외국에서의 프랑스어 보급을 교육부와 외무부가 담당하고, 사전 편찬을 프랑스 학술원이 담당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이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언어 정책에서도 공통분보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영어화가 거세지면서 자국어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적 틀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어 사용법’을 통해 프랑스어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어 기본법’을 통해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전문 분야의 신어가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신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어로 대체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용어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한 절차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행정부 18개 부처의 전문 용어 위원회와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부’, 프랑스 학술원 등이 협력하여 신어를 순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어 기본법에 따라 각 중앙 행정 기관에 설치된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와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지원단, 순화 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전문 용어를 순화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신어의 순화 과정 전체를 명목상이지만 국무총리가 감독한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였다.

또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프랑스는 세계적인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프랑스어를 보급한다. 국내에서는 프랑스어를 제외한 2개 언어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언어 다양성 유지를 프랑스어 국외 보급을 위한 철학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철학적 기반을 다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언어 정책을 수립할 시기가 되었다.

둘째, 프랑스는 프랑스어 교육 과정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어를 제2 언어로 배우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는 FLE 과정을, 학습 프랑스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FLSco 과정을, 이민가정을 위해서는 CASNAV 과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셋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프랑스 주간’의 행사 내용이 다양하고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립국어원이 국외 언어 정책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내실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언어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기관과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방문 기관인 프랑스 언어 정책 기관을 비롯하여 세계 언어 정책 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해당국의 연간 보고서를 공유하고, 세계 대표 언어 정책 기관에서 개최하는 국제 학술 대회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간 언어 정책 추진 현황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은 2010년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개최했던 국제 학술 대회를 정례회하여 2년마다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둘째, 기관 간 정책·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데에서 나아가 유사 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언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순화어 사용 실태 조

사, 국어 능력 조사, 언어 의식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비교할 수 있으며, 모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을 기획·추진하거나 영어의 침투나 소수어의 보존, 나아가 소수 민족의 언어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김현권(2003), 프랑스 모국어 보호 정책과 법제, 《새국어생활》 제13권 제2호.
송기형(1998), 인터넷을 통한 프랑스의 언어 정책 연구 -불어 총괄국의 설립 과정,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5집.
송기형(2000), 프랑스의 언어 정책, 《역사비평》 제52호.
송기형(2005), 국어 기본법과 프랑스어 사용법의 비교 연구, 《한글》 제269호.
송기형·장천현(1999), 프랑스 언어 정책과 불어 사용법,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7집.
이충현(2007), 《세계 언어 정책 기관 조사》, 국립국어원.
허준 외(2010), 《성인 문해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성과 분석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장 프랑수아 발디(2011), 프랑스의 언어 정책, 《세계 언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관련 누리집

- 국가 비문해 퇴치원 <http://www.anlci.gouv.fr/>
프랑스 정부 관보 <http://www.journal-officiel.gouv.fr/>
프랑스 학술원 <http://www.academie-francaise.fr/>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http://www.francophonie.org/>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 <http://www.culture.gouv.fr/culture/dglf/>

